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韩国报刊 选读

朴善姬 主编

한국
신문열독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韩国报刊选读

主 编 朴善姬

副主编 何彤梅 李 民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报刊选读/朴善姬主编.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0. 8

(21 世纪韩国语系列教材)

ISBN 978-7-301-17339-8

I. 韩… II. 朴… III. 朝鲜语—阅读教学—高等学校—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10)第 107390 号

书 名: 韩国报刊选读

著作责任者: 朴善姬 主编

责任编辑: 张 娜

标准书号: ISBN 978-7-301-17339-8/H · 2522

出版发行: 北京大学出版社

地 址: 北京市海淀区成府路 205 号 100871

网 址: <http://www.pup.cn> 电子信箱: zdup@pup.pku.edu.cn

电 话: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52038

出版部 62754962

印 刷 者: 北京大学印刷厂

经 销 者: 新华书店

787 毫米×980 毫米 16 开本 13.5 印张 240 千字

2010 年 8 月第 1 版 2010 年 8 月第 1 次印刷

定 价: 28.00 元

未经许可,不得以任何方式复制或抄袭本书之部分或全部内容。

版权所有,侵权必究

举报电话: (010)62752024 电子信箱: fd@pup.pku.edu.cn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专家委员会

主任委员：

安炳浩 北京大学 教授

中国朝鲜语 / 韩国语教育研究学会会长

张光军 解放军外国语学院亚非系主任 博导

教育部外语教学指导委员会委员

大韩民国国语国文学会海外理事

张 敏 北京大学 教授 博导

牛林杰 山东大学韩国学院院长 教授

委 员：

金永寿 延边大学朝鲜韩国学院院长 教授

苗春梅 北京外国语大学亚非学院韩国语系主任 教授

何彤梅 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主任 教授

王 丹 北京大学外国语学院朝鲜(韩国)语言文化系主任 副教授

韩国专家顾问：

闵贤植 韩国首尔大学国语教育系 教授

姜信沆 韩国成均馆大学国语国文系 教授

赵恒禄 韩国祥明大学国语教育系 教授

总 序

中韩建交之初，北京大学出版社出版了全国25所大学联合编写的韩国语基础教科书《标准韩国语》。在近十年的教学实践中，这套教材得到了广大师生的认可和欢迎，为我国的韩国语人才培养做出了积极的贡献。随着我国韩国语教育事业的迅速发展，广大师生对韩国语教材的要求也越来越高。在教学实践中，迫切需要一套适合大学本科、专科等教学的韩国语系列教材。为此，北京大学出版社再度荟萃韩国语教学界精英，推出了国内第一套韩国语系列教材——《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本系列教材是以高校韩国语专业教学大纲为基础策划、编写的，编写计划基本上囊括了韩国语专业大学本科的全部课程，既包括听、说、读、写、译等语言基础教材，也包括韩国文化、韩国文学等文化修养教材，因其具备完备性、科学性、实用性、权威性的特点，已正式被列为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本系列教材与以往其他版本教材相比有其鲜明特点：首先，它是目前为止唯一被列入“十一五”国家级规划的韩国语系列教材。第二，它是触动时代脉搏的韩国语教材，教材的每一个环节都力求做到新颖、实用，图文并茂，时代感强，摆脱了题材老套、墨守成规的教材编写模式，真正实现了“新世纪——新教材——新人才”的目标。第三，语言与文化是密不可分的，不了解一个国家的文化，就不能切实地掌握一个国家的语言，从这一视角出发，立体化系列教材的开发在外语教材(包括非通用语教材)规划中是势在必行的。《21世纪韩国语系列教材》就是在这一教学思维的指导下应运而生的。第四，本系列教材具有权威性。由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会长、北京大学安炳浩教授，大韩民国国语国文学会海外理事、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副会长张光军教授，北京大学张敏教授，山东大学牛林杰教授组织编写。参加编纂的中韩专家、教授来自北京大学、韩国首尔大学、北京外国语大学、韩国成均馆大学、山东大学、解放军外国语学院、大连外国语学院、延边大学、青岛大学、中央民族大学、山东师范大学、烟台大学等国内外多所院校。他们在韩国语教学领域具有丰富的执教经验和雄厚的科研实力。

本系列教材将采取开放、灵活的出版方式，陆续出版发行。欢迎各位读者对本系列教材的不足之处提出宝贵意见。

北京大学出版社

2007年4月

前言

《韩国语报刊选读》包括短文篇、综合篇、推荐篇。每课包括课文、单词表和练习题。为了帮助学生学习 and 理解原文，短文篇和综合篇配有汉语的译文。具体内容如下。

短文篇的每一课由相近题材的两篇短文组成，这些短文篇幅小，内容多与日常生活有关，避免在开头就给学生带来过多压力。其他内容包括单词表、练习题。练习题与课文的内容有关，也涉及了部分词汇的练习。

综合篇的体例与短文篇一致，只是加大了文章的难度，涵盖的信息量也随之丰富，旨在有针对性地帮助学生提高阅读能力。

推荐篇的文章难度几乎达到了母语阅读者的水平，对学生来说无疑是一个挑战，但相信在教师的指导下，通过阅读使学生在语境中加深对韩国语语法、句法结构的理解，并巩固扩大词汇量，还能够理解一些文化知识，如韩民族的生活习俗、思维习惯、价值观念等。

本教材在篇章选材方面注重内容的趣味性、信息性和多样性。所有篇章均选自近年来韩国报刊原版文章，涉及学习、生活、历史、地理、经济、艺术、医药、食品、网络通讯、热点追踪等。题材广泛、内容新颖、时代性强。

为帮助学生更好地掌握文章的内容，教材对选编的内容提供了参考译文，省却了学生翻检词典之劳，并且对学生提高韩中翻译的技能也有所帮助。

在本书的编撰过程中，我们参考了《京乡日报》、《女性东亚》、《韩民族21》等韩国的多种报刊，恕不在此一一列出，谨向原作者表示衷心感谢。

编著者的水平和经验有限，书中疏漏之处在所难免，敬请广大读者批评指正。

2010年7月

目 录

短文篇

제1과

1. 상생은 21세기 기업 생존 필수조건..... 1
2. 임원이 알아야 할 요즘 신조어들..... 3

제2과

1. 지금은 ‘택배만능시대’..... 7
2. 영국 택배업체 비박스의 배달혁명 8

제3과

1.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12
2. 흡연-금연단체가 논쟁 격화 14

제4과

1.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생활습관..... 18
2. 우리는 고래의 친구인가? 20

제5과

1. 영어 교육의 진정한 의미..... 24
2. “백수가 되느니...” 대학 5, 6학년생이 느낀다..... 26

제6과

1. ‘된장찌개’ 기준 통일될 날 오려나? 29
2. 흑사당하는 눈을 위한 밥상..... 31

제7과

1. 문화 다양성 지키기, 미래 지키기..... 35
2. ‘인구 증가’의 두 견해..... 37

제8과

1. 공자의 ‘논어’와 인(仁)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41
2. 접눈의 시각으로 세상을 두드려라. 43

제9과

1.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48
2. 아이들을 위한 재테크 수업..... 49

제10과

1. 스튜어디스, 그 진실과 오해..... 53
2. 올빼미족을 위한 조언! 아침형 인간이 되는 9가지 비결..... 54

综合篇

- 제1과 남극이 '흑독한 땅'으로 남은 이유..... 58
제2과 직장인 10명 중 7명꼴 “나는야 주경야독 셀러던트”..... 63
제3과 세계와 통화하는 인도 ‘콜센터’..... 68
제4과 당신이 만약 절대반지를 얻는다면?..... 73
제5과 인터넷 쇼핑 노하우... 고수들의 비법 공개..... 79
제6과 지금 고속도로는 몇 시인가?..... 85
제7과 21세기형 쪽방에 저당잡힌 청춘..... 92
제8과 “쇼핑 전, 옷장 정리로 숨은 옷들 찾아라”..... 96
제9과 대박 로또인생의 ‘쪽박 재역전’..... 100
제10과 13년차 프로 백수 잔돌이의 도를 말하다..... 105

推荐篇

- 제1과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 110
제2과 돌, 바람, 여자! 여자를 부르는 제주도 3색 여행..... 115
제3과 200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핫스타 매력 분석..... 124
제4과 식품 관련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 129
제5과 “마트 끊으려니 주말이 너무 기네”..... 134
제6과 불황일수록 택배는 “바쁘다 바빠!”..... 138
제7과 시어머니 악녀 캐릭터 ‘해도 너무해’..... 142
제8과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것일까?..... 146

译文

- 短文篇..... 151
综合篇..... 179

- 答案..... 204



短文篇

제1과

1. 상생은 21세기 기업 생존 필수조건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시련의 계절이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는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온다. 대부분 생물 종(種)들은 스스로의 생존능력이 떨어져 멸종하는 경우보다 먹이사슬 고리가 끊어져 멸종한다. 일제강점기에 숲이 급속히 황폐화되고 토끼와 사슴이 사라지면서 생태계 먹이사슬이 끊어져 결국 한국 호랑이는 버티지 못했다.

기업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경쟁과 협력, 소멸과 탄생, 진화와 쇠퇴를 거듭한다. 제아무리 강한 기업도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피해를 본다. 또 어떤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과 연결된 다른 기업도 연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국 경제의 화두는 '상생경영'이다. 책 '상생경영'은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옮겨간 글로벌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심층 분석, 상생이 곧 투자임을 보여주는 이론적 배경과 발전모델을 이야기한다. 또 도요타, 인텔 등 세계적 기업의 사례를 들어 상생이 21세기 기업 생존전략임을 설명한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루빨리 '저비용 고리'의 연계구조에서 '고기술 고리'의 연계구조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상생협력으로 고품질의 부품과 소재를 생산해 고기술 고리 기업 생태계를 만든 사례가 바로 도요타 자동차다. 도요타는 협력업체들과 철학을 공유, 공동 특허를 1500여 건 갖고 있다. 또 도요타는 제품개발 단계부터 부품업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연평균 1000억 엔 이상의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제품의 기술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어떤 대기업도 혼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할 수는 없다. 각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시스템 통합을 전제로 한 공급사슬에 의

해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 구조를 통해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확장된 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인텔이 세계 50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중심에도 상생경영이 있었다. 다수의 협력사들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공정 개발을 이뤘다. 인텔은 차세대 공정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신생 업체들을 통해 신속히 공급받았다.

그동안 기업들의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기술협력, 부품 공동개발 같은 모범사례가 나오고 실천 방법이 구체화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협력이라기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분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완성업체와 부품업체는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협력으로 보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품업체를 단순한 생산하청업체로 보는 일도 허다하다.

우리도 더 이상 저비용 국가가 아니다. 글로벌시장에서 원가경쟁력으로 싸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가치지향형 품질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 대기업만으로는 혁신 창출에 한계가 있다. 기술과 품질을 뒷받침하는 중소 부품기업이 성장해야 조립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한국 파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상생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이론적 토대는 마련됐다. 실천만 남은 셈이다.

单词

차림표【名】菜单

시련【名】考验

민가【名】民居

먹이사슬【名】食物链

숲【名】树林

황폐화되다【动】变荒芜

버티다【动】坚持

진화【名】进化

쇠퇴【名】衰退

거듭하다【动】重复, 反复

연쇄【名】连锁

화두【名】话题

상생【名】相生, 共赢

도요타【名】丰田

인텔【名】英特尔

확보【名】确保, 拥有

업그레이드【名】升级

공유【名】共有, 共享

공동 특허【名】共同专利

절감하다【动】切实感受到

충족【名】充足, 满足

시스템 통합【名】系统整合

공급사슬【名】供给链

부품【名】零件

분업【名】分工

하청【名】承包, 外包

가치지향형【名】追求价值型

창출【名】创出, 创造

한계【名】局限性, 限度

뒷받침하다【动】做后盾

조립【名】组装

의면하다【动】背过脸去, 熟

토대【名】基础

파이【名】(苹果)派

视无睹

2. 임원이 알아야 할 요즘 신조어들

한국갤럽의 연구원인 곽무경 씨(29)는 최근 PDA기기를 구입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해 한 사이트에 들어갔던 그는 ‘과자 좀 달라’는 글을 게시판 곳곳에서 발견했다. 곽 씨는 ‘대체 먹는 과자를 왜 찾는 거야?’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과자’는 암호체계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란 뜻의 ‘크래커(Cracker)’에서 유래한 신조어다. 이처럼 인터넷 바람을 타고 신조어들이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신조어를 모르면 대화하기 힘들다’란 말이 나올 정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들을 정리해봤다.

▲ 골드미스와 혼남의 만남은 므훗.

“내년엔 나도 골드미스”. 방송계를 주름잡고 있는 박경림 씨가 내년이면 서른 살이 된 다면서 한 말이다. 그런데 ‘골드미스’가 뭔가? 금, 즉 재력을 나타내는 ‘골드’와 미혼 여성을 뜻하는 ‘미스’가 합쳐진 이 말은 ‘경제력 있는 30대 미혼 여성’을 뜻하는 신조어다. 하지만 박경림이 ‘혼남’을 만나 내년에 결혼에 골인한다면 ‘골드미스’와는 ‘즐!(헤어질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혼남’은 또 뭔가? ‘보고 있으면 혼 혼해진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이 말은 호감 가는 남성을 뜻하는 말이다. 외모보다 인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미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골드미스가 혼남을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 당연히 흡족할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선블리 ‘흡족하다’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므훗하다’라고 써야 누리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형태나 의미로 봐서 ‘흐뭇하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므훗하다’란 말에는 음흉한 생각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착한 생고기’ 팝니다.

최근 문을 연 고깃집의 캐치프레이즈다. ‘아니, 고기마저 선악의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가?’라며 가우뚱하는 당신은 이미 구세대. 웰빙 식단을 표방하는데다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점을 강조하며 내세운 수식어가 바로 ‘착한’이다. 이처럼 요즘 ‘착하다’란 말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어질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착한’ 시리즈의 대표격은 ‘착한 가격’이다. 합리적인 가격을 뜻하는 이 말은 맛집부터 의류, 전자기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을 경우에 쓰인다. 최근에는 ‘착한 과자(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식품첨가제를 쓰지 않은 대안 과자)’, ‘착한 커피(제3세계 생산지 농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른 후 수입한 커피)’ 등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상품에 붙여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착한’이 몸매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될까? 착한 사람은 알겠는데 ‘착한 몸매’가 언뜻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얼른 인터넷 ‘연예’ 사이트를 열어보자. 주목할 것은 멋진 연예인들의 사진이 아니라 그 아래 댓글이다. 살펴보면 주류가 ‘착한 몸매’ 타령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남녀불문하고 멋진 신체 조건을 뜻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선택 기준도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몸’을 넘어 ‘착한’ 성품에 ‘착한’ 몸매로 바뀌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썰렁하다’가 단순히 추위를 느낄 때 쓰는 말에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할 때 쓰는 말로 진화했듯 ‘착하다’도 이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착하다’는 가치평가가 포함된 말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주 연세대 국문과 교수는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착한 몸매가 있다면 나쁜 몸매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들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있던 의미가 새롭게 변형돼 쓰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의 경우 본뜻과 달리 누리꾼들에겐 ‘십대부터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의 준말로 더 많이 사용된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호사다마’도 마찬가지. 원래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란 사자성어지만 최근엔 ‘호랑이 같이 사납고 다람쥐 같이 약은 마누라’를 줄인 표현으로도 자주 쓰인다. 직장 상사 눈치에 부인 눈치까지 봐야 하는 남성들의 푸념을 담은 신조어다.

单词

임원【名】干部

신조어【名】新造词

겔럽【名】盖洛普

PDA【名】掌上电脑

소프트웨어【名】软件

게시판【名】告示板, 留言板

의아하다【形】奇怪, 纳闷

암호체계【名】暗号体系

무력화【名】使之无力

프로그램【名】程序

크래커【名】饼干

유래하다【动】来源于

골드【名】黄金

훈남【名】憨厚的男子

주름잡다【动】叱咤风云



재력【名】财力	저렴하다【形】低廉	언뜻【副】猛然
골인하다【动】进球, 进入 (状态)	내세우다【动】提出, 宣扬	눈치 빠르다【词组】有眼力 见儿
훈훈하다【形】温暖	수식어【名】修饰语	썰렁하다【形】冷清
흡족하다【形】满意	언행【名】言行	수순을 밝다【词组】按照顺 序
선불리【副】草率地, 轻举妄 动	바르다【形】正确, 端正	십장생【名】十个长寿的物象
누리꾼【名】网民	어질다【形】仁慈	준말【名】缩略语
음흉하다【形】阴险	시리즈【名】系列	호사다마【名】好事多磨
생고기【名】生肉	맛집【名】饭馆	탈【名】毛病
캐치프레이즈【名】标语, 警 句	가격 대비【名】价格比较	사자성어【名】四字成语
선악【名】善恶	원재료【名】原材料	사납다【形】凶恶
가우똥하다【动】摇晃	첨가제【名】添加剂	약다【形】机灵
웰빙식단【名】健康食谱	대안【名】代案, 代行方案	부님【名】抱怨, 埋怨
표방하다【动】标榜	대가를 치르다【词组】付出 代价	
	윤리적【名/冠】伦理的	
	몸매【名】身材	



练习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왜 기업 생태계와 자연 생태계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가?
- 2) 인텔은 어떻게 10년 사이에 세계 50대 기업으로 성장했는가?
- 3) '골드미스'와 '훈남'은 각각 무슨 뜻인가?
- 4) '착한'은 최근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는가?

2.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에 넣으십시오.

확보, 묶다, 골인, 화두, 진화, 절감, 주름잡다, 표방하다, 썰렁하다, 훈훈하다

- 1) 이 작품은 소설과 영상, 고전음악과 연극을 한데 () '클래식 모노로그'라는 새로운 작



품 양식을 선보인다.

- 2) 유명한 변호사들이 블로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 될 '블로그 미디어와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하고 블로거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3) 물류관리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의 부품과 물류 관리 비용이 ()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 하지만 커진 인터넷 쇼펍물 시장만큼 더욱 똑똑하게 ()한 쇼펍족들은 옷의 품질이 높 으면서도 백화점에는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개인 쇼펍물을 꼼꼼하게 찾아다니고 있다.
- 5) 검찰은 이들이 일반인 40여 명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사생활을 살핀 단서도 ()해 수사 를 확대하고 있다.
- 6) 재래시장들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 분위기다.
- 7) 한 시대를 () 영웅이 죽은 뒤, 그 시신과 무덤을 둘러싸고 산 자들이 벌인 치열한 투쟁 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 8) 두 사람은 극중 빈부 차이를 뛰어넘어 결혼에 ()하지만 양가 부모 사이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면서 고통에 휩싸이는 신혼부부를 연기한다.
- 9) 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과 봉사활동 전개해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만 들였다.
- 10) 맛있는 맥주를 () 하이트맥주는 '맛있는 아이디어로 연말 파티용 맥스 받자'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제2과

1. 지금은 '택배 만능시대'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딴니~ 다 되지~” 택배(宅配)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배송만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 얘기가 돼 버렸다. 외환 환전에서부터 기숙사 짐까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요즘 택배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택배 만능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택배사들이 특화서비스란 이름을 붙인 취급품목은 엄청나다. 여기에 계절 특수상품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셀 수가 없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택배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 외화 환전에 여권까지=현대택배는 최근 국내 택배사들 중 처음으로 환전택배에 도전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외화를 직접 배달해 주는 것으로, 현재 배송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과 성남시 분당구 지역으로 국한돼 있지만, 고객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진 택배는 지난 96년부터 택배회사 중 유일하게 여권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유학 준비에 바쁜 고객들과 여권(비자)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지방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 비자는 물론, 캐나다 비자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 요금(편도)은 서울 6천 원, 경기 8천 원, 그 외 지방 1만 원 정도다.

◆ 김장김치도 택배로 OK=김장철인 가을과 초겨울 무렵, 택배사들은 바쁘다. 평소 5%에도 못 미치던 김치배송이 70~80%대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사실 김장택배는 택배회사에게 있어 골칫거리 품목 중 하나다. 무게는 물론, 포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 그래서 택배사들은 전용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까지 해주고 있다.

KTX를 이용한 당일 택배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당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진의 당일 택배를 이용할 경우 부산 자갈치 시장의 싱싱한 활어를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맛볼 수 있다.

◆ 맨 몸으로 떠나는 여행=휴가철 맨몸으로 떠나는 바캬스 택배도 여름철 인기 서비스로 꼽힌다. 여름철 휴가시 무거운 짐을 휴가예정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현대택배 등



국내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다.

현대택배는 피서지에 눌러온 고객들의 집을 고객들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것은 물론, 피서지에서 집을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빠뜨리고 간 고객들의 집까지 찾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대한통운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렌터카 서비스를 활용한 '제주도 렌터카+여행택배+펜션 패키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 무거운 기숙사 짐도 한번에='기숙사택배'는 대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서비스 중 하나다. 방학을 전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기숙사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로, 지방 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현대택배와 대한통운 등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품목에 비해 운송 중 파손·변질 가능성이 높은 한약을 배송해 주는 한약택배와 의류를 구김 없이 전달해 주는 의류행거배송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는 택배사들의 이색 서비스 중 하나다.

单词

택배【名】送货到家

환전【名】换汇

도래하다【动】到来

특화서비스【名】异化服务，
特别服务

이름을 붙이다【词组】加上
名字

취급품목【名】涉及品种，经
营品种

엄청나다【形】庞大，巨大

특수상품【名】特需商品

해소하다【动】解除，缓解

편도【名】单程

자리매김하다【动】定位，确
立地位

미치다【动】及，达到

급증【名】急增

골칫거리【名】麻烦事，老大
难

스티로폼【名】泡沫塑料

싱싱하다【形】新鲜

활어【名】活鱼

바캉스【名】休假，度假

빠뜨리다【动】遗漏，漏掉

선보이다【动】亮相，披露

렌터카【名】汽车租赁

인기 만점【名】人气满分

변질【名】变质

한약【名】中药

구김【名】褶皱

행거【名】衣架

파손【名】破损，损毁

이색 서비스【名】特色服务

2. 영국 택배업체 비박스의 배달혁명

언젠가부터 공중전화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전화 부스는 아직도 도심지 한켠에 드

문드문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들어 있는 장면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가끔 부스 안에서 열심히 입을 놀리는 사람은 열에 여덟은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차 소리를 피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경우다. 그렇게 이용자가 줄어도 공중전화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드는 것이다.

영국에는 이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 물류사업에 나선 벤처기업이 있다. 런던 시내에만 700개에 달하는 전화 부스를 물품보관소로 개조해 소포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시설물을 배달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 영국의 통신사업자인 BT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비박스(ByBox)는 사실 BT와 손잡기 전부터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독특한 사업 모델로 딜로이트 패스트 50 기업에 선정됐고, 혁신 기업에 주는 상들을 휩쓸었다. 올해 나이 40인 창업주 스튜어트 밀러는 옥스퍼드 주에서 올해의 사업가로 선정되면서 돈방석에 앉았다.

비박스의 성공 포인트는 신속하고 낭비 없는 배달 시스템에 있다. 영국에서 인터넷 주문 상품의 12% 가량은 한 번에 배달이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 맞벌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공급자에게 추가적 배달 비용을, 소비자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준다. 이런 엇박자 문제를 물품보관소(dropbox)라는 매개수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게 비박스의 사업 모델이다. 택배 물건을 보관소에 떨어뜨려놓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보관소가 영국 내에 1만 8000곳이 있으며, 여기에 공중전화 부스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전통적인 택배업은 큰 창고에 많은 수송인력, 집적물 시설까지 갖춰야 해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비박스는 자체 개발한 틴벤토리(Thinventory)라는 프로그램과 물품보관소라는 배달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런 하드웨어 문제를 극복했다. 틴벤토리는 인터넷 주문부터 물품 반출-포장-배송-반송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안한 소프트웨어다. 배달해야 할 물건이 어느 이동 흐름에 있으며, 현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앉은 자리에서 훑히 파악할 수 있다. 비박스의 또 다른 강점은 모든 사람이 잠든 야간에 물품을 운송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 아침 8시 이전 배달을 보장한다. 밤사이 고객의 집 근처 공중전화 부스 등에 물건을 떨어뜨려줌으로써 출근길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 소비자들에 크게 호응을 받으면서 비박스의 인기는 연일 상종가다. 코카콜라·후지쓰·지멘스·RAC·리코 등 세계적 대기업이 비박스의 배달망을 매일 이용하는 고객이 됐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영업망을 개설해 유럽 대륙으로까지 진출했다. 지난해 매출은 2400만 파운드(525억 원). 2002년 로열 메일과